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기계도시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일

기계도시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일

인 준 서

이 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스며들어 진화하며 문명적, 문화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는 인간을 기계화되고, 정형화된 틀 속에 예속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간소외, 억압, 상실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만들어 내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 하고 있는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모습과 심리적 요인들을 형상화하고, 불안한 현실과 고독, 일상 등을 본인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내적 공간인 ‘기계도시’에 본인의 시각과 사유를 통한 현시대를 담아내려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계도시’의 표현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이고 우울한 삶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찾고자 함에 있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이면을 본인의 시각과 내적 공간, 그리고 조각작품을 통해 현대사회 속 현대인이 느끼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상징적 이미지와 허구적 표현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작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4년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의 주제인 ‘기계도시’의 표현에 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분석을 서술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의 배경	3
1) 현대도시와 현대인	3
2) 내적공간과 기계도시	6
2. 작품표현방법	7
1) 도시 이미지의 반영	6
2) 건축적 재료	8
3) 의인화한 기계로봇의 표현	10
3. 작품분석	12
III. 결론	2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도시괴물, 스테인레스 스틸, 140x70x273(cm), 201412
- 【작품 2】 도시감옥, 스테인레스 스틸, 94x50x104(cm), 201414
- 【작품 3】 노예 시리즈, 스테인레스 스틸, 돌, 16x10x33(cm), 201416
- 【작품 4】 외눈박이, 스테인레스 스틸, 24x15x38(cm), 201418
- 【작품 5】 도시괴물자식, 스테인레스 스틸, 60x40x105(cm), 201420
- 【작품 6】 +, 스테인레스 스틸, 94x50x104(cm), 201422
- 【작품 7】 CITY, 스테인레스 스틸, 190x65x245(cm), 201424

I. 서론

인류와 도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영향을 받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거대화 된 도시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정서적 안정을 만들어 준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조금씩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는 경쟁 구도와 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선사하였다. 이들의 삶은 여러면에서 소외, 억압,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는 인간을 기계화 하고, 정형화된 틀 속에 예속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간소외, 억압, 상실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만들어 내었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모습과 심리적 요인들을 형상화하고, 불안한 현실과 고독, 일상 등을 본인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내적 공간인 ‘기계도시’에 본인의 시각과 사유를 담아내려 하였다.

현대사회를 투영하여 표현한 본인의 ‘기계도시’는 현대사회의 환경과 부정적인 측면을 투영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수직, 수평의 직선적 구도의 선들과 구조물을 사용하여 의인화한 형상의 차가운 기계 로봇들은 기계화된 현대사회, 인간을 부속품처럼 만들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되는 현대도시 속 현대인의 내면을 상징하며, 현대인을 억압하는 존재로써 표현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도시’가 본인의 작업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작품 분석에 앞서 현대도시와 그 안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도시라는 암울하고, 불안한 현실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 작품의 표현방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통해 향후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현대도시와 현대인

도시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한정된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교하게 짜여진 사회제도 속에서 바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곳은 주거 및 위락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와 예술 등 각종 행위가 벌어지고, 산업사회의 상징인 각종 물질들이 넘쳐나며, 그것들을 생산·유통·소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복합체인 거대한 인공 환경(Man made or Built Environment)이다.¹⁾

도시는 인류문명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역사를 발전시키는 근원지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도시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발달은 엄청난 인구를 도시로 몰려들게 함으로써 거대도시의 등장을 가속화 시켰다.²⁾ 이러한 도시의 등장은 인구집중 현상을 만들었으며, 기계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공간을 생성, 개발하였으며, 건물은 고층화 되고 집단화 되어 무성한 건물 숲을 만들었다. 또한 인류는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스며들어 진화하며 문명적, 문화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고도화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의 자동화를 이뤘고 인간은 노동과 빈곤에서 해방되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1) 노춘희, 김일태 공저, 『도시학 개론』, 형설 출판사, 2004, p.12

2)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p.5

도시사회학자 뎀포드(Lewis Mumford, 1895-1990)는 사람들이 도시의 죽음을 걱정하다가 이제는 사자들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Necropolis)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뎀포드는 이처럼 세속이 자연을 압도하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서, 사람과 삶을 초월하여 성장만을 갈구하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변하고 있고, 이 메갈로폴리스가 성장을 지속하면 중국에는 죽음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가 된다고 설명했다.³⁾ 사회구조는 “역사의 단축”으로 표현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뒤돌아 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뒤돌아 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 질주시대 속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점점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되고 낙오자가 되며, 결국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게 된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움츠려 있는 현대인들의 불안감과 소외, 고독감을 증폭시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다.

이렇듯 현대 도시는 인간 소외를 낳는 배경으로 그려진다. 도시의 고층 건축물은 이를 더 상징화시키는 느낌을 주며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 기능을 하는 필수적 생활공간이자 외부와의 고립 단절을 의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특정계층이 사회를 지배 관리한다. 이는 급격히 발달한 과학기술, 대량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등장했다. 하지만 통제를 위해서 규율이 필요했고, 결국 사회가 원하는 규칙이 생겨났으며, 인간은 획일적으로 관리되어진다. 현대인이 생활하는 이 사회 조직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감옥인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빠른 변화와 복잡한 사회상 속에서 개인에게 가

3) Lewis Mumford, 『City in History』,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61, p.234

해지는 문화적 충격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도시라는 거대한 존재에 파묻혀 사는 현대인은 개인의 정체성보다 도시 속 사회 구성원이라는 틀에 들어가 누군가가 쥐어주는 직함을 얻고 익숙해져 삶의 의미와 표현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성찰, 자아 발견 등은 등한시되고 일상이 반복된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신 안에 스스로 가두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은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인은 노동을 통해 인간을 본질적 활동작용으로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노동의 결과가 자본가의 사유물화 되는데서 노동력의 상품화에 의한 소외현상이 일어나는게 사실이다. 또한 조직사회에서 인간성 상실로 조직, 집단 혹은 구조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 사고와 행동을 고정화 혹은 획일화 시켜 인간을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 메커니즘 속에 부품화 시키는 것이다.⁴⁾ 인간의 개성은 말살되고 창조성은 고갈되어 인간상품, 인간교환, 인간시장의 근성들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인간이 창출한 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물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고 인간의 자유로우며 창의적인 활동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고 비인간화하는 괴물로 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소외를 볼 수 있는 것이다.⁵⁾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상실과 소외를 느낀다. 이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 패턴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외는 도시사회의 산물이며 이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4) 장진호,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교육의 의미와 과제』, 1986, 배영사, p.84

5)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38~39

2) 내적공간과 기계도시

공간은 우리의 시지각으로 인지되는 현상학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상상력이 작동되는가, 어떻게 이미지화 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금 재생산 된다고 볼 수 있다.

내적 공간은 모든 시청각적 요소들이 결합된 현상공간을 인지하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상상력을 일으킴으로써 변화된 공간의 확장, 이미지화로써 도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불안한 심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들만의 상상공간을 만든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현대인기도 한 본인은 불안한 현실과 고독, 일상등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를 바라보았으며, 이를 본인의 상상으로 내적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바슐라르(G. Bachelard)⁶⁾는 “상상력이란 지각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지각의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하였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였으며, 상상력이 이미지를 그대로 기억에 떠오르게 하는 기능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상력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⁷⁾

예술가의 창조성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창조적 표현 형식을 통해 관람자에게 미적 즐거움을 안겨준다. 즉 그들은 사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사회적, 정신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해낸다. 상상력은 예술가에게

6) 프랑스의 철학자(1884~1962), 이성을 기반으로 한 서구문명의 객관적 과학의 세계에서, 이미지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상상력의 세계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7) 구인환, 『문학교수 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p.329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를 형성하게 하고 현실세계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다. 또한 상상력은 그들의 과거의 기억과 내면의 감정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더불어 예술작품의 전개와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인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정과 같은 현실에서의 불가능한 일들은 상상의 연상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본인은 상상을 통한 내면세계를 표출해 내고, 이러한 이미지는 새로운 창조물을 발견하는 매개체가 된다, 상상력이란 경험 속에 형성된 이미지를 새롭게 조직하고 결합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현대사회란 암울한 시대배경을 만들고, 허구적 캐릭터들을 창조하여 본인의 내적 공간인 ‘기계도시’를 만들었다. 이러한 본인의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기계도시’는 현실과 현실속의 현대인의 내면 심리를 반증해주며, 현실의 내적 부분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를 투영하는 공간이다.

2. 작품표현방법

1) 도시 이미지의 반영

도시를 가득 채운 기하형태의 건물들은 19세기 말부터 모더니즘 건축에 의해 전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도시 풍경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오늘날 도시를 바라보면 웅장하게 서 있는 고층빌딩들과 숲을 이루는 아파트, 화려한 네온사인과 자동차의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의 밤풍경,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한 건물내의 상가들 등 도시 환경 속의

많은 형태들은 자연의 미적인 감흥과는 다르게 인위적이며 가공된 조형미를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발달은 엄청난 인구를 도시로 몰려들게 함으로써 도시는 인구집중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 도시의 인구집중은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건물은 고층화되고 집단화 되었다. 건물들은 서로가 경쟁하듯 무엇보다 높아야 하며, 개성과 식별성을 요구 한다.

이처럼 곧고 높은 건물의 형상이야말로 현대도시를 장식하는 가장 두드러진 도시 형태이며 도시의 건물들은 형태적 상징으로 도시의 이미지에 관계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집합적 상징이다.

본인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직, 수평의 직선들과 반복적인 선의 구성들을 기계도시 속 작품에 반영하려 하였다. 수직, 수평의 직선적 표현은 도시의 외형적 요소에서 웅장함 그리고 날카로움과 차가움 등 현대인의 심성을 대변하는 요소로써 적합한 형태로 보았으며, 인류가 만들어낸 도시공간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이며 단순화시킨 반복적인 선의 구성은 현대 도시 속에서 반복되는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2) 건축적 재료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과 도시화는 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따라 건축은 그 형태와 재료에 있어서 변화하게 된다. 대량생산된 철과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와 같은 산업재료들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과 보장된 품질을 갖추며 새로운 사회구조의 생산방식에 필요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데 사용되기에 이르른다.

본인 작품의 재료가 가지는 물성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재료의 성질을 통하여 조각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재료는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표현방법을 연구했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된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구, 봉, 판, 선, 주름관, 볼트, 너트, 캡

둘째, 스틸- 앵글, 판, 봉, 선, 자바라

셋째, 돌- 오석, 대리석, 화강석, 사암

이처럼 수많은 재료들이 준비하지만 이 재료들은 현재 도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건축 재료이다. 도시의 웅장하며 곧게 뻗은 이미지와 구조물들의 물성적 특징, 그리고 ‘기계도시’가 갖고 있는 차가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인은 차가운 금속과 벽돌 등을 사용하였다. 기하학적으로 반복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에는 차갑고 쪽쪽 뻗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재료가 적당하였다. 날카로운 면의 처리에 현대적인 느낌을 낼 수 있고, 가공되어 면과 모서리가 확실하게 나온 재료들은 면과 면으로 이어진 ‘기계도시’의 표현에 적당하였다.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로 큰 골조를 이루고 있는 본인의 작품들은 현대 도시의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수평, 수직 구조를 재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대 도시의 건물들은 정사각의 평 단위로 나누어 그 위로 올려진 듯한 형상으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각 형태를 통해 획일화 된 모습으로 기본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사각의 뼈대 위로 금속 면과 선들을 이용해 차가워 보이며, 기계화된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작품에 사용한 금속은 기계적이며 획일적인 고층빌딩으로 가득찬 현대도시의 이미지를 표방하며, 직사각형 구조는 도시의 구조적 형태에서 오는 반복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3) 의인화한 기계로봇의 표현

로봇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영화에 나오는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한 기계를 떠올리게 된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은 만능이다. 강한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복잡한 연산도 전자두뇌로 쉽게 처리한다. 또한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설사 로봇에게 사고가 나더라도 간단하게 고치기만 하면 된다. 반면에 로봇에 비해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게 그려진다.⁸⁾ 로봇에 대하여 품고 있는 꿈과 공상은 거대한 힘, 하늘을 나는 능력, 물이나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등 실제 인간에게는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

본인의 내적공간으로 만들어진 ‘기계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허구적 존재인 기계로봇은 기계화된 현대사회, 인간을 부속품처럼 만들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되는 현대도시 속 현대인의 내면을 상징하며, 현대인을 억압하는 존재로써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기계로봇을 의인화 하여 작품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의인’ (擬人)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김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것에 법률의 인격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더 강하게 시각적인 전달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것을 표현하는 본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체구조를 살펴보면 인체는 복잡한 기계와 비교되기도 한다. 즉 여러 기관의 교묘한 구성에 의해 전체의 활동이 조화가 된다. 세포부터 시작하여, 골격, 근육 등 많은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감정의 표현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각 예술

8)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문화유람, 2007, p.14~40

을 하는 본인에게 있어서 시각과 촉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인체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같은 표정과 같은 크기의 사지를 달아 인체를 형상화한 【작품 3】은 복제된 현대인을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은 본래 개개인이 존귀한 존재임에도 현대사회에서 일개 부품으로 인식되고 취급받으며 그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다. 획일화 되면서 각자의 고유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복제인간을 연상시키며,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의미한다. 현대도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1,2,4,5,6,7】은 수직, 수평의 구조를 기반으로 인체를 형상화한 크고 작은 기계로봇의 형상이다. 이 중 【작품 1,7】은 거대한 크기로 표현하였다. 크기의 개념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의 본능적인 미술 감각에 기인한다. 이집트, 페르시아, 고구려의 벽화나 부조는 절대 권력, 왕정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파라오, 황제, 임금은 과장되게 큰 크기로 그려지고 신하, 병사들은 그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백성들은 이보다 더 작은 크기로 그려졌다. 이러한 왜곡의 역학은 현실속에서는 비합리적이지만 작품 내에서 권력을 상징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로봇의 거대함은 고대의 문화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거대한 로봇은 적에 대항하는 강한 힘의 표상이다.⁹⁾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거인처럼 비대해진 크기의 기계로봇은 현대인에게 억압감과 소외감을 주는 존재로써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기계로봇을 의인화하여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써의 존재로써 표현하였으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을 작품에 은유적으로 담아내었다.

9) 로봇 디자인의 숨겨진 규칙-영화 속 로봇 디자인 이야기, 구신애, 살림, 2009, p.60~62

3. 작품분석



【작품 1】 도시괴물

【작품 1】 도시괴물

연도 : 2014

크기 : 140x70x273(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방법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머리, 몸, 팔, 다리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묘사하여 알콘 용접한 뒤 그 위에 스테인레스 볼트와 5~1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봉을 사용하여 알콘 용접한다. 각각의 관절 부분은 80 \emptyset 스테인레스 파이프위에 4 \emptyset 스테인레스 선을 사용하여 돌돌 말아주며 알콘용접을 하여 스프링 형상으로 만들어준 뒤 각각의 팔 부분을 알콘용접 용접하여 연결시켜준다. 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 손바닥은 스테인레스 2T 판과 5 \emptyset 스테인레스 각봉과 볼트, 그리고 4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30 \emptyset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넣어 완성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도시괴물’은 수직의 선들이 강조된 사각 몸통들의 구성요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합체된 형상이다. 두 발은 괴물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처럼 만들어졌으며, 그 꼭대기에는 상대를 내려다 보는 시선이 있다.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식은 대지 위에 서있는 인간을 모범으로 하는 조각의 기본 문법과 동시에, 수평적으로 뻗어나간 도로들 위로 수직적으로 솟은 격자화 된 근대 도시를 의미하며, 건물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복합체인 이러한 형상은 현대도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거인의 모습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도시감옥

【작품 2】 도시감옥

연도 : 2014

크기 : 94x50x104(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방법

20~5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머리, 몸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묘사하여 알곤 용접한 후 파이프 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2T 판을 사용하여 표면을 샌딩 처리 한다. 그 위에 스테인레스 볼트와 5~1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봉과 10~2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알곤 용접한다. 머리부분의 눈 부분은 100 \emptyset 구를 사용하여 표현해준 뒤 2T 스테인레스 스틸 밀러판 레이저 커팅 한 이빨형상의 2T 스테인레스 판을 사용하여 알곤용접 한다. 머리 윗부분과 몸통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레이저 커팅한 2T 스테인레스 판을 각 사이즈에 맞게 커팅 한 후 완성 해 준다. 끝으로 각각의 부분에 금속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밀색을 칠한 뒤 차량용 카페인트를 사용하여 색을 칠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도시감옥’ 은 획일적으로 관리되어지는 현대사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반복되는 삶과 주체성을 잃고 고립되어가게 만드는 현대인들의 도시공간을 도시 속 건물의 특징인 점, 선, 면을 사용한 감옥 형상의 틀과 날카로운 이를 갖춘 기계로봇 형상의 모습을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작품 3】 노예 시리즈

【작품 3】 노예 시리즈

연도 : 2014년

크기 : 16x10x33(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돌, 스틸

제작방법

4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컷팅후 얼굴부분을 만든 뒤 표면을 샌딩처리 해준 뒤 4~5 \emptyset 스테인레스 구슬을 사용하여 알곤용접하여 눈을 만들어준다. 40 \emptyset 스테인레스 구와 철 자바라, 스테인레스 환, 각 파이프를 사용하여 팔 부분을 만들어준다. 발 부분 역시 팔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뒤 발가락은 4~5 \emptyset 각 봉을 사용하여 만들어 준뒤 철자바라와 알곤용접으로 연결시켜준다.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암, 화강석, 오석, 대리석 등을 벽돌크기의 사이즈로 컷팅 후 종류별로 잔다듬과 광택처리를 한 뒤 연결 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각각의 머리, 팔, 다리를 에폭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작품설명

작품 ‘노예 시리즈’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현대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벽돌에 머리와 사지가 달려있는 이러한 노예 시리즈는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표준화된 생산물이며, 벽돌 쌓듯이 무엇인가 생산하는 기계임을 알려준다. 노동을 통해 인간을 본질적 활동작용으로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노동의 결과가 자본가의 사유물화 되는데서 노동력의 상품화에 의한 소외 현상을 표현하려 하였다. 무표정하며 일하기 좋게 생긴 팔과 다리, 그리고 늙기 좋게 생긴 형태는 물질만능주의인 현대사회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란 존재로써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한다.



【작품 4】 외눈박이

【작품 4】 외눈박이

연도 : 2014년

크기 : 24x15x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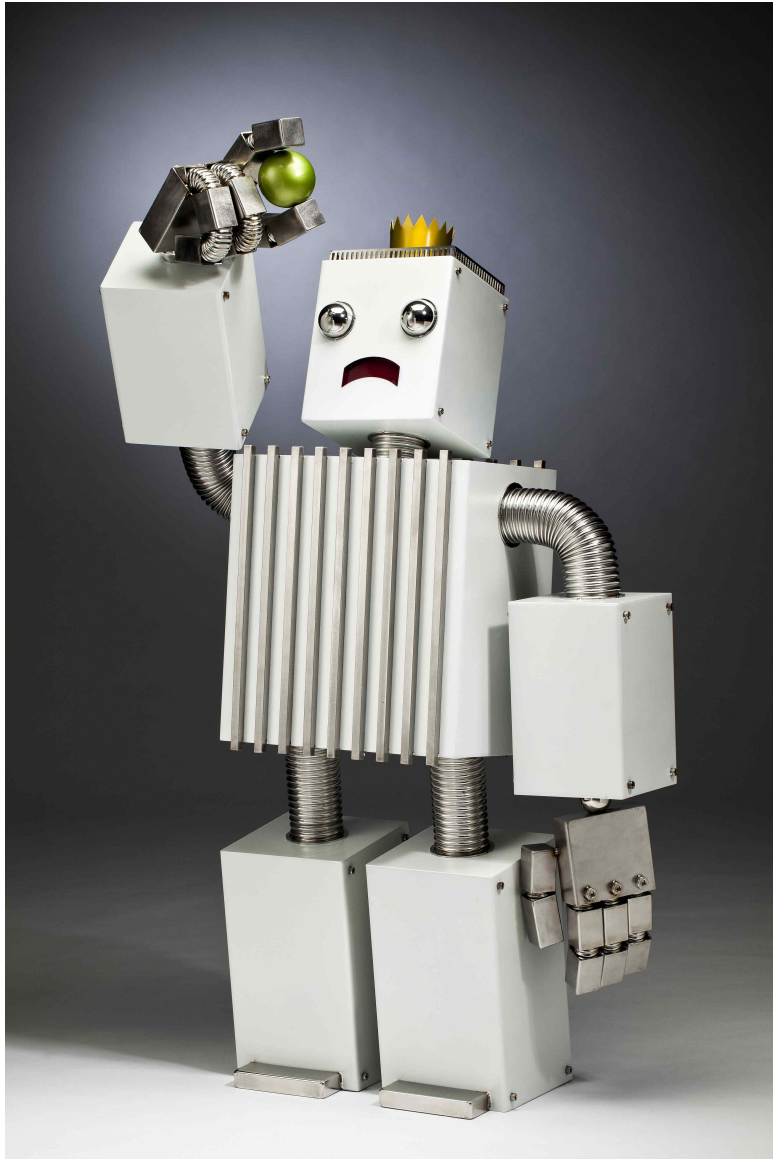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방법

몸통, 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컷팅한 20~100 \emptyset 스테인레스 파이프와 파이프 마감 캡, 그리고 50~150 \emptyset 스테인레스 구를 알콘용접하여 결합시킨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20*40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컷팅한 뒤 열을 주어 푸른색으로 만든 3 \emptyset 구슬으로 눈을 만들어 준 뒤 볼트로 귀를 알콘 용접하여 만들어준다. 조립이 다 된 후 컷팅한 5 \emptyset 스테인레스 각봉을 몸 부분에 알콘용접 하여 수직선을 만들어준다. 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10*30 스테인레스 각 파이프를 컷팅해 손바닥을 만든 뒤 5 \emptyset 스테인레스 각봉으로 손가락을 만든 뒤 팔부분에 알콘용접 한다. 전체적인 모습이 나온 뒤 금속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밑색을 칠한 뒤 차량용 카페인트를 사용하여 색을 칠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외눈박이’는 이미지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뎅이의 형상과 기계로봇의 형상을 결합하여 만든 작품이다. 쓰러져도 다시 오뎅이처럼 일어나는 작품의 모습은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현대인의 삶을 표상한다.



【작품5】 도시괴물 자식

【작품 5】 도시괴물 자식

연도 : 2014년

크기 : 94x50x1040(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방법

스테인레스 2T 판을 사용하여 얼굴, 몸, 팔, 다리에 해당하는 큰 부분을 만든다. 얼굴부분에서 눈은 40 \varnothing 스테인레스 구를 사용한 뒤 알곤용접해 준다. 왕관 부분은 레이저 커팅 후 밴딩하여 알곤용접한 뒤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머리와 연결해 준다. 난간부분은 레이저 커팅 한 뒤 알곤용접을 한다. 60 \varnothing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사용하여 머리, 몸, 팔, 다리를 연결시켜 준 뒤 볼트를 사용하여 알곤용접하여 조립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8 \varnothing 스테인레스 각봉을 사용하여 몸통의 앞뒤 부분에 각봉을 반복적인 선을 만들어준다. 스테인레스 2T 판과 볼트로 손을 만들어 준뒤 주름관을 넣어 만들어 준다.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2T 판을 절곡 시켜 광택처리 후 알곤용접 한다. 전체적인 모습이 나온 뒤 금속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밑색을 칠한 뒤 차량용 카페인트를 사용하여 색을 칠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도시괴물 자식’ 도시공간 속 건물의 특징인 점, 선, 면 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인 박스들의 구성과 주름관, 볼트, 각관등 건축적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라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미지를 왕관을 쓰고 있는 어린 로봇형상으로써 표현하였다. 과거 도시는 꿈과 희망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써의 공간 이었다. 현대도시가 이러한 과거의 긍정적인 의미로써의 현대도시가 되길 희망하는 본인의 바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6】 +

【작품 6】 +

연도 : 2014년

크기 : 94x50x104(cm)

재료 : 캔버스에 드로잉

제작방법

10*20∅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몸, 팔 형태를 사각형으로 묘사하여 알곤 용접한 후 파이프 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2T 밀러판과 5~10∅ 스테인레스 각봉을 사용하여 알곤 용접한다. 얼굴부분은 스테인레스 2T 판을 사용하여 프라즈마 절단기로 절단한 후 알곤용접한다. 머리의 눈부분은 반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와 볼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준다. 몸통 윗부분과 팔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2T판을 난간 형상으로 레이저 커팅 가공 후 알곤 용접한다. 손부분은 스테인레스 2T 판을 절곡 후 알곤 용접 한 뒤 손등 부분에 볼트로 알곤용접 한다. 마지막으로 금속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밑색을 칠한 뒤 차량용 카페인트를 사용하여 색을 칠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 는 의인화 된 기계로봇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 라는 기호로써 이미지화 한 작품이다. ‘+’ 라는 기호는 현대도시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관객의 시각에 맞는 위치인 작품의 몸통 부분을 반사판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수직 선들로 철창의 모습으로 구성하여 바라본 관객의 모습이 작품에 담아지게 표현하였다.



【작품 7】 CITY

【작품 7】 CITY

연도 : 2014년

크기 : 190x65x245(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방법

0~6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머리, 몸, 팔 형태를 사각형으로 큰 틀을 묘사한다. 몸통의 뒷부분은 열고 닫히기 위해 경첩을 사용, 알콘 용접한다. 각각의 파이프의 시작과 끝 부분은 사각 마감 캡을 사용하여 막은 뒤 알콘 용접한다. 목 부분은 15 \emptyset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밴딩하여 쌓아올린 뒤 알콘용접 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여 몸과 머리를 알콘용접하여 연결시켜준다. 팔부분의 연결 부위는 100 \emptyset 스테인레스 파이프위에 4 \emptyset 스테인레스 선을 사용하여 돌돌 말아주며 알콘용접을 하여 스프링 형상으로 만들어준 뒤 각각의 팔 부분을 알콘용접 용접하여 연결시켜준다. 손 부분은 20 \emptyset ~50 \emptyse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와 40 \emptyset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넣어 마무리 지은 뒤 팔과 알콘 용접한다.

작품설명

작품 ‘CITY’ 는 수직, 수평의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사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격자 형상을 강조한 상반신의 로봇형상으로써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각 형태를 통해 획일화 된 모습은 현대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반복되는 도시의 수많은 건축물을 선의 집합적 형태를 사용하여 철창 형상으로써 표현하였다. 몸통 뒷부분에 문을 내어 관객이 직접 들어가 인간이 기계로봇 속에 갇혀진 연출은 현대사회 안에 고립되어있는 현대인을 표현한 작품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내적공간인 ‘기계도시’를 주제로 하여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의 배경과 근거를 찾아 연구하였고, 도시와 그곳을 이루고 있는 건축적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한 기계로봇이 현대사회를 투영한 ‘기계도시’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대 도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는 급속도로 비대해졌으며, 기계적, 획일적인 거대한 환경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외감과 위압감, 억압감등을 느끼게 한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상상을 통한 내적 공간으로써 만들어진 ‘기계도시’에 현대사회를 투영 시키고자 하였다. 본인은 보이는 그대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닌 도시의 상징적 요소와 기계화된 현대사회, 인간을 부속품처럼 만들고 가능한 초라한 존재로 전락되는 현대도시 속 현대인의 내면을 상징하는 허구적 대상인 의인화된 기계로봇이란 작품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현실 속의 내적부분과 현대인의 내면심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주관적으로 재현하여 인간 소외와 상실감, 그리고 거대한 도시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억압감등을 깊이 있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불안하고 암울한 ‘기계도시’란 작품의 표현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이고 우울한 삶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삶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진보적인 발전과 성찰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주목하여 연구함으로써 창의적 작업들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암울한 현대사회가 아닌 희망이 가득한 현대사회가 되어 지길 희망하는 바 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구신애 『로봇 디자인의 숨겨진 규칙-영화 속 로봇 디자인 이야기』,
살림, 2009년
- 구인환 『문학교수 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년
- 노춘희, 김일태 공저 『도시학 개론』, 형설 출판사, 2004년
- 심재상 『노장적 시각에서 본 보들레르의 시세계』, 살림, 1995년
-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문화유람, 2007년
- 장진호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교육의 의미와 과제』, 배영사, 1995년
-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년
-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년

《사전》

- 구인환 『국어용어 사전』, 신원문화사, 2006년

ABSTRACT

An Expression Study On The machine city —ON THE BASIS OF MY WORK—

Lee, il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oday, modern people are permeating into the environment that rapidly changes to evolve and have developed in the civilized and cultural manner. Therefore, the modern society has brought us the material richness and the convenience of the life. However, the modern society mechanized the human and subjugated the human in the stereotypical frame with the development while causing all kinds of social problems such as the human alienation, suppression, and loss.

The author who makes a living in the same age and sympathizes with this problem focused on the negative aspect of this modern society and embodied the figure of the modern society and the psychological factors based on this aspect and would put the modern poem through the author's viewpoint and thinking in the machine city, 'an internal space that was made by the author's imagination with the anxious reality, solitude, and dail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if our current life is abnormal or gloomy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machine city' and to look back on our figure and find the identity of our life with this as a momentum.

The author would study the dark side of the modern society modern people feel through the symbolic image and the fictional expression through the author's viewpoint, internal space, and sculpture. Also, the more developmental frame of work will be arranged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process that the work has been developed.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based on the works made in 2014.

The study purpose and the study method about the expression of the 'machine city', a theme of the author's work were suggested in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The formation background of the work, expression method, and analysis of contents were described in the body in chapter 2.

The contents of this paper were arranged to suggest the future work direction in the conclusion in chapter 3.